

TDB 경기동향조사(전국) - 2017년 9월 조사 -

2017년 10월 4일
주식회사 테이크데이터뱅크 산업조사부
http://www.tdb.co.jp/
경기동향조사전용HP http://www.tdb-di.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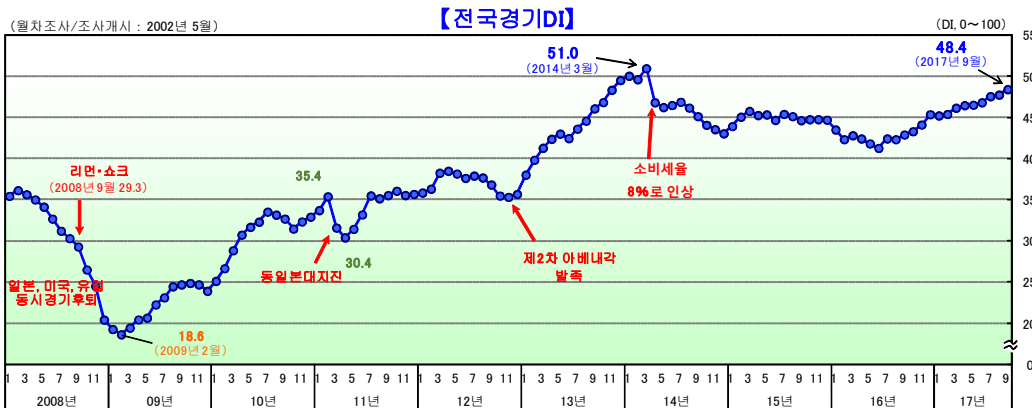
제조업의 호조로 국내경기가 4개월 연속 개선

~ 건설업은 「대기업」 「중소기업」 「소규모기업」 전부가 50을 상회 ~

(조사대상 2만 3,341사, 유효회답 1만 212사, 회답율 43.8%, 조사개시 2002년 5월)

조사결과 포인트

- 2017년 9월의 경기DI는 전월 대비 0.7포인트 증가한 48.4로 4개월 만에 개선되었다. 국내 경기는 수출확대의 영향으로 제조업이 전체의 체감경기를 끌어올렸으며, 주식시세의 상승과 왕성한 건설투자로 인하여 회복이 지속되었다. 향후의 국내경기는 설비투자의 증가나 개인 소비회복 등 내수가 호전되며 회복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제조』 『금융』 『건설』 『도매』 등 9개 업계가 개선되었으며 『소매』가 악화되었다. 자동차나 기계관련, 전자부품의 수출확대로 8개월 연속으로 개선된 『제조』나 『도매』 등 4개 업계가 소비세율인상 이후 최고치를 갱신하였다. 주식시세의 상승이 플러스요인으로 작용한 『금융』과 함께, 활발하였던 대형공사 안건으로 인하여 『건설』도 개선되었다.
- 『키타칸토』 『호쿠리쿠』 『큐슈』 등 10개 지역 중 9개 지역이 개선되었으며 홋카이도가 악화되었다. 10개 지역 중 8개 지역이 소비세율인상 이후 최고치를 갱신하였다. 공공공사 이외에 호조를 띤 자동차나 반도체, 공작기계 등이 주력산업인 지역의 개선이 눈에 띄었다. 규모별로는 3개월 연속으로 「대기업」 「중소기업」 「소규모기업」이 모두 개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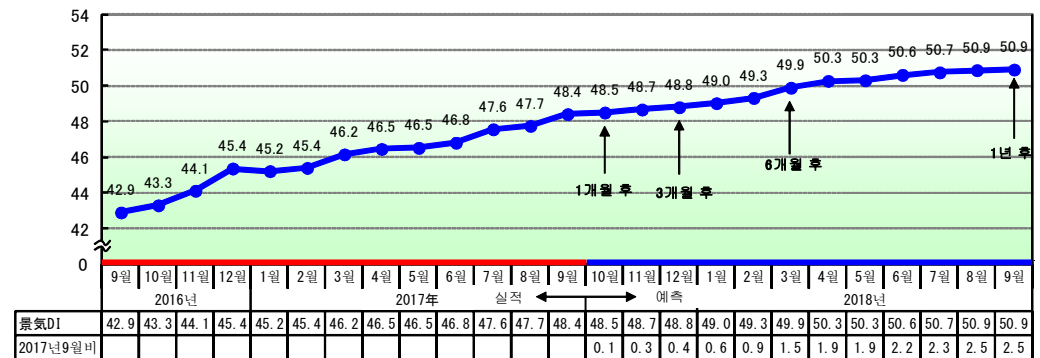
< 2017년 9월의 동향 : 회복이 지속 >

2017년 9월의 경기DI는 전월 대비 0.7포인트 증가한 48.4로 4개월 연속 개선되었다.

9월의 국내경기는 제조업의 호조가 전체를 끌어올렸다. 아시아용 전자부품이나 기계, 미국용 자동차관련 등을 중심으로 수출증가가 계속되어 『제조』가 8개월 연속으로 개선되었다. 일부 지표에서는 수출이 리먼쇼크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쿄증권1부의 시가총액이 과거최고를 갱신하는 등 주식시세의 상승으로 인한 거래액의 증가가 『금융』에 플러스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건설』은 올림피아드관련과 공공공사 등 왕성한 건설수요를 배경으로 『대기업』 「중소기업」 「소규모기업」 전부가 50대로 나타났다. 국내경기는 수출확대로 인하여 제조업이 전체의 체감경기를 끌어올렸으며, 주식시세의 상승과 왕성한 건설투자로 회복이 지속되었다.

< 향후 전망 : 회복세가 지속 >

기업수익의 호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인력부족의 심각화로 인하여 성력화(省力化)투자 등 대기업업을 중심으로하는 설비투자의 증가가 전망된다. 또한 견조한 고용·소득정세나 소비심리의 회복으로 개인소비가 완만히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경제는 안정적으로 추이하며 수출은 앞으로도 견조로 추이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유럽과 미국의 금융정책동향과 북한정세에는 주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10월에 실시되는 총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새로운 경제대책의 책정 등으로 인한 경기향상이 기대되지만, 기초적 재정수지(프라이머리 밸런스)를 흑자화하려는 목표가 연기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향후의 국내경기는 설비투자의 증가와 개인소비회복 등 내수가 호전되며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경기예측DI는 ARIMA모델에 경제통계를 더한 Structural ARIMA모델로 분석